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17번)가 2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비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8회 4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날린 후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신시내티는 이날 피츠버그에 2-6으로 패해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또하나의 역사 쓰다

PS서 홈런포 … 한국인 메이저리거 첫 득점·타점

팀 패배 DS진출 무산… 류현진과 투·타대결 무산

"내년에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이래 처음으로 경험한 포스트시즌에서 딱 1경기만 분위기를 접하고 올 시즌을 접은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추신수는 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2-6으로 패한 뒤 내년에는 월드시리즈에서 꼭 뛰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날 단판대결에서 피츠버그에 패한 신시내티가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추신수도 이번 시즌을 마감했다.

추신수는 "의미 있는 한해였지만 여기까지 와서 패해 아쉽다"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날 1-6으로 끌려가던 8회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때리고 4회 득점에도 성공하는 등 한국인 빅리거로서 첫 타점과 첫 홈런, 첫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남겼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이래 8년 만에,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된 지 5년만에 추신수가 처음 출전한 가을 잔치에서 터뜨린 첫 아치다.

또 역대 한국인 타자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작렬시킨 첫 홈런이다.

추신수는 이날 3타수 1안타를 치고 2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

3년 만에 20홈런-20도루 클럽에 복귀하고 내셔널리그 톱타자로는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100볼넷-100득점-300 출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추신수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으로 출루율을 꼽았다.

그는 출루율 0.423을 올려 팀 동료 조이 보토(0.435)에 이어 리그 2위에 올랐다.

추신수는 "1번 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얻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톱타자 부재에 시달린 신시내티로 이적해 정교함과 파괴력, 주루 능력을 동시에 선사하며 팀 득점에 보탬이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디비전시리즈 출전권이 걸린 단판 대결에서 신시내티가 탈락하면서 리그 서부지구 챔프로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과의 포스트시즌 한국인 투·타 대결도 무산됐다.

메이저리그에서 뛴 한국인 선수중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이는 추신수까지 4명이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출격을 준비 중인 류현진이 가세하면 5명으로 늘어난다.

김병현(현 넥센)이 2001~2003년 애리조나와 보스턴에서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 무대를 경험했고, 최희섭(현 KIA)이 다저스에서 뛰던 2004년 리그 디비전시리즈에 출전한 바 있다. 이후 박찬호(은퇴)가 2006년(샌디에이고), 2008년(다저스), 2009년(필라델피아)를 거치며 가을 무대에 올랐다.

한편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는 추신수는 앞으로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지 언론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5년간 9000만 달러에 장기 계약한 외야수 헌터 펜스의 예를 들어 추신수가 1억 달러 이상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시내티 구단은 물론 뉴욕 메츠, 시카고 컵스 등 열혈팬을 확보한 전통 있는 구단이 공·수·주 삼박자를 겸비한 추신수 영입에 나설 잠재적인 팀으로 꼽힌다.

추신수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시즌을 정리한 뒤 FA 시장에 나가 거액의 다년 계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은 추신수와 일문일답.

-오늘 경기와 이번 시즌을 평가하면.

▲이번 시즌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매 경기 나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여기(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와서 지게 돼 아쉽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피츠버그는 투수 등 모든 면에서 우리 팀보다 나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기록은.

▲시즌 초반 애틀랜타와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쳤던 게 기억에 남는다. 기록 중에서는 출루율이 의미가 있다.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다.

-이번 시즌 아쉬움이 남는다면.

▲ 너무 많다. 수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올 시즌 수비위치가 중견수로 바뀌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힘들었고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나아졌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전체적으로 다 보완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에 어떤 팀에서 뛰고 싶은지.

▲이제 시즌이 끝났다.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직도 신시내티 선수다. /연합뉴스

선동열호 내년 마운드 빛 보인다

김진우 소방수

SK·NC전 6.1이닝 7탈삼진

완벽 마무리…시즌 첫 세이브

박경태 선발진

최근 선발 2경기서 완벽투

NC전서 7년만에 첫 선발승

김진우와 박경태의 움직임이 2014 시즌 KIA 마운드를 바꾼다.

KIA는 후반기 4강 싸움에서 멀어진 뒤 내년 시즌에 초점을 맞추고 마운드를 운영해왔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퍼즐을 맞췄지만 불펜 부진속 윤석민의 해외진출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마운드 구상이 쉽지는 않았다.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마운드에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다. 박경태와 김진우의 예상 밖 선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

몇 년 째 계속된 KIA의 고민은 마무리. 선동열 감독이 올 시즌 고육지책으로 앤서니를 마무리로 투입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마운드의 전체적인 틀이 어그러졌다. 최근 김진우가 마무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진우는 지난 겨울 선 감독이 마무리 후보로 검토했던 선수 중 하나다. 팔꿈치 부상으로 없던 일이 됐지만 최근 팔이 좋지 않은 윤석민을 대신해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진우 마무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컨디션 난조로 2군에 다녀왔던 김진우는 지난 9월27일 SK와의 경기를 통해 마무리 역할을 수행했다. 1-1 무승부로 막이 내렸던 이날 김진우는 3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패배를 막았다. 20여 일만의 등판이었지만 완벽하게 SK 타선을 막으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지난 30일 NC와의 경기에서는 박경태에 이어 3.1이닝을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책임져주며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김진우의 반응은 '마무리 OK'다.

김진우는 "마무리 역할을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많은 이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 나가야 하는 지 모르는 만큼 경기에 더 집중하면서 공을 던지게 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종적인 결정은 선 감독의 몫이다.

내년 시즌에 대한 질문에 김진우는 "뒤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것도 좋고 괜찮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감독님의 몫이다. 감독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선 감독의 마무리 구상에도 김진우가 들어있다. 부상이 마지막 고민이다.

선 감독은 "김진우와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괜찮다고 한다. 부상이 걱정이다. 마무리는 항상 대기를 해야 하는데 부상이 잦은 편이라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우의 겨울나기에 따라서 마무리 구상이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선발진에는 좌완 박경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경태는 9월11일 SK와의 경기에서 잡은 선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7.2이닝을 1실점(비자책)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던 박경태는 9월30일 NC전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경기가 3-0으로 끝나면서 데뷔 7년 만에 첫 선발승을 챙기기도 했다. 단번에 박경태는 2014시즌 선발진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경태는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구속도 떨어졌고 기술적으로 크게 좋아진 것은 없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자신있게 던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자신감을 얻었다. 팀 성적이 아쉽기는 하지만 후반기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밝혔다.

후반기 자리를 바꾼 김진우와 박경태, 두 투수가 2014시즌 마운드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감독 "광주일고-광주상고 웬수들이었지"

덕아웃 말·말·말

▲안 아파 보이려고요=어깨 수술 후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은 이용규, 아파 보일까봐 라커룸에서 어깨 보조기를 빼고 나왔다면서.

▲웬수들이었지=학창시절 얘기를 하던 선동열 감독, 당시 광주일고와 광주상고(현 동성고)가 만나기만 하면 치열하게 경기를 했다며.

▲얼굴이라도 고칠까?=박경태, 마운드에서 얼어있는 표정이라는 소리를 듣자.

▲아 그럼 맞네요=취재진과 계산한 타율이 달랐던 신종길, 자신의 안타 갯수를 착각했다며.

▲감독님이 자꾸 수비를 내보내시더라고요=나지완, 골든글러브 얘기가 나오자. 올 시즌 상대적으로 지명타자 부문의 경쟁이 약한데 수비를 많이 나가서 외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웃으며.

▲닭발이 됐지=김경진 매니저와 옛날 얘기를 하던 김종국 작전코치, 매니저가 신인 시절에 송구 실수를 한 뒤 손이 굳어서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더라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철벽 수비수 임하람 2주연속 베스트 11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이광진·박희성도 선정

〈임하람〉 〈이광진〉 〈박희성〉

광주 FC의 철벽 수비수 임하람이 2주 연속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의 수비수 임하람이 지난 라운드에 이어 다시 또 베스트 11이 됐다. 수원전 결승골의 주인공 이광진과 수비수 박희성도 이름을 올렸다.

임하람은 "힘과 높이를 앞세운 수비로 상대 공격수를 봉쇄"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시즌 8번째다.

이광진도 "임대 이적 후 확실하게 광주 축구에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광진은 26라운드 후반 35분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감각적인 슈팅을 선보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수비의 중심으로 떠오른 박희성은 "적극적인 몸싸움과 몸을 사리지 않은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